

# 1950년~1969년(초기발전기 ~침체기)

## (1) 1950~1959(초기발전기)

정부가 수립되고 제반기구가 부설됨에 따라 양돈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6.25동란으로 돼지사육두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종전과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도에는 1,400,000두에 달하였으며, 1950년대 전반기에 들면서 개별적으로 원료사료를 구입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사육품종은 주로 재래종과 재래종에 버크셔종을 교잡한 잡종이었으며, 1952년에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 기증한 아이오와주산 버크셔 142두(암 111, 수 31), 햄프셔종 18두(암 13, 수 5), 듀록종 20두(암 15, 수 5) 등 총 180두가 축산기술원에 도입됨으로써 듀록과 햄프셔종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게 되었다.

이때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계 버크셔종은 새로 미국에서 도입한 버크셔종보다는 발육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폴란드차이나종과 체스터화이트종 및 요크셔종도 약간 보유하고 있었다.

## (2) 1960~1969(침체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1950년대의 과열분위기와는 달리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10년간 계속 1,300,000~1,450,000여두 수준이 유지되었다. 1962년에는 홍콩으로 생돈이 수출되는 등 활기를 보여 1,969,000두까지 증가하였으나 중국산 생돈의 덤핑수출로 홍콩으로의 돼지수출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63년에는 축산시험장이 국비로 종돈 42두(버크셔 12, 햄프셔 12, 랜드레이스 18두)를 미국에서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랜드레이스종이 국내에 널리 공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돼지는 폭이 넓으면서 키가 작은 라드형인데 반하여 새로 도입된 버크셔나 햄프셔종은 키가 크고 체장이 길며 늘씬한 미트형이었다.

축산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종자돈은 주로 각도 종축장에 우선 분양되었고 도종축장에서 증식하여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순종돈 사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때부터 순수한 재래돈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또한 사양관리방법도 단미사료를 이용한 자가배합급영 농장이 늘어나면서 배합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료출처 : 한국축산연감 1989~90 농수축산신문)